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결산 - 中

우리 전통예술의 미래 열다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 시동

소리 넥스트 통해 축제 외연 확장

10월 헝가리·불가리아서 공연

▲세계로 향하는 전통예술

소리축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후원하는 '2025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 선정 축제로 축제의 외연을 마켓으로 확장했다.

전통음악 기반 예술단체의 국내외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작품 유통과 실질적인 협업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첫 단추를 꿴다.

이번 장르별 시장 거점화 사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한국적 작품의 유통을 통해 미래를 견인하고자 기획, 축제의 기존 행사들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구성됨으로써 축제의 '스케일업'을 도모했다.

소리축제 기간에 함께 진행된 '소리 넥스트'는 전문가 대상의 기획·공모 쇼케이스, 토크, 팸투어,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소리 넥스트는 쇼케이스의 아티스트 선정부터 축제 무대에 오르기까지 총 22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마켓에 참여한다. 특히 기획단에는 천재현(전통예술 연출가, 소리프론티어 예술감독), 계명국(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감독), 김미소(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총감독), 이수정(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예술



'소리 텍스트 2025' 포스터

감독)이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무엇보다 올해 마켓에는 진리(Jean Lee, IMG Artists 총괄 프로듀서, 미국), 클라우디아 발라델리(Axe Worldfest 감독, 캐나다), 리사 브래니건(Re-Play Music C.I.C & Green Futures Festivals 창립 디렉터, 영국), 보제나 쇼타(Ethno Port Festival 감독, 폴란드), 하이잉 송(Productions Yari 감독, 캐나다·중국), 샌디 간(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홍콩), 레이첼 쿠퍼(Asia Society 미국 본부 & 글로벌 지부 감독, 미국) 등 총 8명의 해외 공연

예술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소리축제 기간 다양한 공연을 관람했으며, 실질적인 우리 전통예술의 해외 진출을 타진했다.

그 결과, '소리프론티어'에 참가해 우승한 '우리음악집단 소옥'은 오는 10월 헝가리, 불가리아 등 유럽 공연이 예정돼 있다. 또한, 내년 4월에는 '소리축제' 뉴욕 공연이 확정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리축제와 올해 마켓에 참여한 해외 공연예술 전문가들은 북미와 아시아 권역 개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어 외연 확장에도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진리 IMG 아티스트 미국 총괄 프로듀서는 "한국의 젊은 소리꾼들이 한국에만 머물러선 안 되고,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미 소리축제가 열리고, 북미 전역의 파트너들과 함께한다면 정말 멋진 축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이철 쿠퍼 아시아 소사이어티 공연예술 감독은 "이번에 만난 한국의 젊은 뮤지션들은 이미 자신감과 카리스마, 뛰어난 실력을 갖췄다"며 "이들이 세계 음악 신(Scene)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희선 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은 "소리 넥스트를 통해 국내외 전통음악의 시장으로 진출하고, 더 넓은 세계와 마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리축제가 그 플랫폼으로서 우리 전통음악의 해외 진출에 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1부 '강패와 장구' (15)

저 서양 수녀는 누구예요?

- 오 상 근 -

그렇다고 당장 달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썩은 목재와 쓰레기들을 나르려나 또 무안했다. 한량으로 시간이나 때우다 가라고 말없이 동식을 묵인해준 보호관찰관의 체면도 있는데.

안절부절 잠시 망설이던 동식은 뒤에 떠밀리듯 작업 현장으로 다가갔다.

백색 운동화가 진흙에 더럽혀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부러진 썩은 목재를 두 팔로 안아 들었다. 하얀색 추리닝이 썩은 목재 가루에 더럽혀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일을 하던 다른 사람들이 동식을 힐끔거렸지만 별 말은 없었다.

점심이 가까워워 무렵 서양수녀는 성당으로 올라갔는데 잠시 후 내려와 일꾼들에게 소리쳤다.

"자, 점심을 먹고 하세요! 욕계장을 풀어 놓았으니 다들 성당으로 올라가시게요!"

일꾼들은 어떻게 할지 서로 눈치들을 봤다.

"수녀님이 욕계장을 준비하셨답니다. 식사를 하십시오."

같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곤 하던 중년남자가 일꾼들에게 소리쳤다. 사람들은 실장감을 벗어 털면서 중년남자를 따라 성당으로 올라갔다.

규모는 작았지만 성당 안에 식당이 있었고, 일꾼들은 의자에 앉았다. 식탁에는 이미 밀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동네 아낙들로 보이는 여자들이 일꾼 각자 앞에 밥과 욕계장을 놓아주었다. 중년남자가 서양수녀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식사를 권했다.

다들 얼얼한 욕계장에 밥을 말아 속이 뜨끈하고 든든하게 먹었다. 동식도 괜히 건달이랍시고 똥똥 잡지 않고 욕계장의 얼얼한 국물에 밥을 말아서 배부르게 먹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인스턴트커피를 한 잔씩 들고 밖으로 나갔는데, 동식은 보호관찰관에게 다가갔다. 그가 아침보다는 더 밝은 표정을 지으며 동식을 쳐다봤다.

"잘 하시던데요, 허허허." 건달이라고 일도 안하고 농땡이나 피울 거라 예상했는데 추측과 달리 그러저러 성실한 면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라. 겸연쩍은 동식은 그의 눈을 피했다.

"저 서양 수녀는 누구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 마을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요 봐요. 이 동네에서 거의 40년을 살았다고 하지요, 아바."



"40년이나요, 와! 어느 나라 사람인데요?" "이태리인가 어디에선가 왔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동네가 동계월이라 부르는 나환자촌이었는데, 그때 이 동네에 와서 엄청나게 병사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아까 보셨지만 일하는 거 보세요. 정말 존경스런 분이예요."

"이름이?"

"강루이지 수녀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강..... 루이지요?"

"예, 강은 우리나라 성씨 강을 붙인 거랍니다."

"나하고 같은 강씨네....."

오후 작업시간이 다 끝날 무렵, 동식의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를 보니 오정태다. 동식은 이마를 찌푸렸다.

농약전수관 공사 때문에 전화를 못이네. 전수관에서 이명주를 만난 뒤로 동식은 정태의 제안이 부담스러워졌다.

그동안 해왔던 비즈니스에 비하면 정태의 명령은 그야말로 꺾이었다. 동식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똥똥 까고 협박하는 일인데, 공사 하나 몰아주도록 위협하는 것은 누워서 식은 죽 먹기가 틀림없다.

하지만, 덩 ~ 덩 ~ 쿵파 쿵, 덩 ~ 덩 ~ 쿵파 쿵. 전수관에서 들었던 휘모리장단 장구 연주와 이명주의 미소가 동식의 입과 발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동식은 목장갑을 벗고 한쪽으로 가서 통화 버튼을 터치했다.

"어떻게 되었나?"

발을 빼겠다고 말하면 성질 급한 정태가 당장 불같이 화를 낼 것이다.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요."

"뭘 지켜봐, 지켜보길! 입할 들어오는 놈들이 있단데!"

"누가 그래요?"

"누구는 누구냐? 청룡에서 그러지!"

"그래요?"

동식은 일부터 놀란 척했다.

전주서 미디어아트 전시 즐기러

우진문화공간서 9월 2~26일

'안동, 이 아름다운 동쪽' 개최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정종섭)이 관광거점사업의 일환으로 '안동, 이 아름다운 동쪽' 미디어아트 전시를 전주 우진문화공간에서 9월 2~26일까지 전시한다.

이에 따르면 이 전시는 안동의 길을 거니는 여정이다. 안동은 낙동강의 부드러운 곡선과 태백산의 웅장한 작산을 품은, 유교와 불교·민속문화가 유연하게 계승되고 있는 전통문화도시다. 곡선과 직선이 교차하며 새로운 시선을 만들어내듯, 이는 오래된 미래로 거듭나는 안동의 특별함이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는 골짜기마다 노래가 남은 도산을 거니는 여정이다. 사계절 정다운 도산의 풍경을 소개한다. 퇴계 이황은 도산에 사는 즐거움을 봄바람에 핀 꽃과 가을밤을 밝힌 달빛으로 노래했다. 이로부터 도산은 골짜기마다 노래가 남고, 이 노래는 시공을 초월하는 진리가 됐다. 그러기에 도산의 산수를 거닐며 옛사람들의 노래를 읊조릴 수 있다.



2부는 학가산을 품은 산지승원, 봉정사·광흥사·제비원 미륵불을 만나는 여정이다. 안동의 진산 학가산을 품은 산지승원, 숲속의 산사를 소개한다. 천년 봉황이 상서로운 유네스코 세계유산 봉정사, 한글문화를 꽃피운 강경도감의 본사 광흥사, 너그러운 미소를 머금은 제비원

미륵불을 만날 수 있다. 영험한 부처님의 고요한 말을 거닐며 영영 잊지 못할 마음의 울렁임을 느낄 수 있다.

3부는 이름난 산수의 한 굽이 하회를 거니는 여정이다. 안동의 하회는 산수로 이름이 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마을이다. 옛날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넘나들며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이 전시는 5개의 관광거점도시를 순회하는데 협업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크다. 2024년 안동과 부산에서 시작돼 2025년 8월에 강릉 전시를 마치고, 9월에 전주를 거쳐 11월 목포에서 마무리하는 일정"이라며 "미디어아트 '안동, 이 아름다운 동쪽' 전주 전시에서 안동의 문화를 즐기며 잠시나마 여유를 즐기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안동은 2020년 강릉, 부산, 목포, 전주와 함께 관광거점도시 5개 중 하나로 선정됐다. /장은성 기자

거문고·전통예술 매력 만나다

남원시, 제22회 악성 옥보고 전국 거문고 경연대회 성료

남원시는 지난 23일, 제22회 악성 옥보고 전국 거문고 경연대회가 성대하게 열리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신라시대 거문고의 시조로 불리는 악성 옥보고 선생의 열을 기리고 차세대 명인을 발굴하고 우리 전통음악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행사는 오전 9시 예선 경연으로 시작해 다양한 부문에서 참가자들의 실력을 겨루었고, 오후 2시 본선 무대에서는 수준 높은 연주가 이

어졌다.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된 시상식과 국악 명인들의 축하공연은 관객들에게 전통음악의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하며 대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특히, 학생부와 일반부 등 다채로운 무대는 신진 연주자들의 가능성과 역량을 보여주었으며, 국악 명인·명창들이 참여한 특별공연은 거문고와 전통예술의 매력을 한껏 드러내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은 판소리 동편제의 발상지이자 '춘향



가'와 '홍보가'의 무대이며, 거문고 대가 옥보고 선생이 학문과 음악을 닦던 곳이다. 이번 대회는 이러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국악의 도시, 남원'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로 평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주 복합문화지구 누에, 중장년 인문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완주 복합문화지구 누에가 중장년 인문예술 프로그램 '2막학교: 인생은 아름다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완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40세부터 64세까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회화를 통해 다양한 인생사를 만나고 삶에 위로를 건넨다. 또한 인문학 특강과 자기 삶을 토대로 회화를 쓴 뒤, 스스로 배우가 돼 동료들과 남독극 형식으로 무대에 올리는 참여형 수업이다. 창작된 작품들은 출간돼 도서관

등 주요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회기우 극작가가 주 강사로 참여하고, 현재 왕성하게 활동 중인 여러 문화인과 연극인이 협력 강사로 글쓰기를 돕고, 연기·발성 등 회극 낭독 방법도 알려준다.

수업은 총 23회(개별 지도 포함)로, 9월 3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수·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완주군 용진읍 누에아트홀에서 무료로 열린다. 참가 신청과 문의는 전화(070-4477-5893) 또는 포스터 내 QR코드, 누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10월 3~4일 '제4회 전주공예박람회' 개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제4회 전주공예박람회'에 참여할 체험·판매 공예작가 40팀을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공예박람회는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예 작가들을 중심으로 공예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공예문화를 가까이 전하고자 마련된 공예 전문 박람회다. 박람회는 10월 3~4일 이틀간 한지산업지원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느림의 미학, 살림의 온도'를

주제로, 일상의 삶과 맞닿아 있는 '리빙(Living)'을 주요 테마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역 공예 작가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지역에서 활동 중인 공예 작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작가 신청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jc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소리꾼 한단영 '박봉술제 적벽가' 무대에

31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서

대한민국의 젊은 소리꾼 한단영이 오는 31일 오후 2시,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한단영의 동편제 적벽가'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유과별 해설이 있는 판소리 다섯바탕'의 마지막 무대로, 고수 고정훈과 해설자 김정배 교수가 함께해 작품의 역사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을 보다 깊이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공연은 유과별 해설이 있는 판소리 다섯바탕, 다섯 번째 무대는 한단영 명창의 동편제 박봉술제 적벽가다. 적벽가는 삼국지의 대표 전투인 적벽대전을 소재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웅 서사를 통해 충의와



인덕의 가치를 전하는 동시에, 전쟁의 참상과 권력자에 대한 풍자를 품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박봉술제 적벽가는 굽적하고 담백한 소리로 동편제 특유의 중후한 음색을 지니며, 고어와 사자성어가 풍부하게 사용돼 뛰어난 성량과 공력이 요구된다.

한단영 명창은 이러한 박봉술 바디의 진면목을 정통 발성으로 구현하며, 조조 패주, 화용도 북병 등 적벽가의 주요 대목을 해설과 함께 풀어낸다.

/장은성 기자